

4년 임기 반환점 맞은 미셸 박 위원 '한인들 세무상담 너무 안해요'[LA 중앙일보]
한시라도 빨리 도움 청해야 해결 쉬워...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모토로 삼아

LOS ANGELES 중앙일보 USA 중앙방송

기사입력: 10.28.08

미셸 박 가주 3 지구 조세형평위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OC에서 처리한다. LA 카운티 일부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가 그의 관할 지역이지만 조세 업무에 있어 OC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.



OC 전지역을 총괄하는 미셸 박 가주 3 지구 조세형평위원이 임기의 절반을 마친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.

개진한 끝에 벌금과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. 할머니는 위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몇 번씩 인사를 했다.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.

박 위원은 되도록 비즈니스 업주들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.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를 대할 때는 특히 그렇다.

“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비즈니스를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. 그 경험 때문에 언어나 규정에 미숙한 소수계 업주들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죠.”

그가 조세형평위원회에 입성하자 콧대 높은 공무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. ‘선출직 위원들이야 몇 년 지나면 다른 데 갈 거 아니냐’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여성인 박 위원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.

박 위원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. 속속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관할 지역 사무소를 순회하며 직원들과

지난 2006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박 위원은 어느새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.

“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발 미리 도움을 청하세요.”

박 위원이 가장 안타까워 하는 것은 많은 한인들이 세금 관련 상담을 등한시 한다는 점이다. 털어 놓고 의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조정 청문회에 회부될 때 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.

“비즈니스를 하는 주위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준 한인 할머니가 계셨어요. 그런데 그 사업체가 망하고 난 뒤 할머니에게 밀린 세금이 부과됐죠. 애초에 상담을 했으면 잘 해결될 수 있었는데 청문회까지 갔습니다.”

조세 당국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, 세금과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감면해 줬다. 하지만 웰페어에 의지해 사는 할머니에겐 수천 달러의 벌금도 버거웠다.

청문회에서 박 위원은 할머니 편에 서서 강력하게 의견을

개진한 끝에 벌금과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. 할머니는 위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몇 번씩 인사를 했다.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.

안면을 텅다. “업무 방향이 틀린 것 같다”며 반기를 든 한 변호사에겐 공개 석상에서 “업무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. 다시는 그런 식의 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”고 일갈, 과감하게 진압(?)했다.

박 위원은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잘못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주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. 지난 8 월에는 샌타애나와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통합해 마련한 어바인 사무소(16715 Von Karman Ave. #200)를 오픈하고 OC 한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.

‘인간의 얼굴을 한 조세행정’을 모토로 삼고 있는 박 위원은 “2010 년 선거에서도 반드시 재선을 이뤄내겠다”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.

▷문의: (310)377-8759 피터 김 보좌관

임상환 기자 limsh@koreadaily.com